伊언론 "맨유, 김민재 영입에 874억원 쓴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33년 만에 나폴리 우승 일조

맨유, 나폴리에 바이아웃 지불해 김민재 영입 고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서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에 일조한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할까.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6000만 유로(약 874억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7일(한국시간)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6000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떠나 세리에A에 진출한 김민재는 나폴리의 핵심 중앙 수비수로 자리잡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3경기 중 32경기에 출전했다. 2골 2도움도 올렸다.

지난 8년 동안 나폴리의 수비를 책임진 칼리두 쿨리발리(첼시)의 대체자로 합류해 데뷔 시즌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안정적인 모습에 유럽 주요 구단들은 시즌 내내 군침을 흘렸다. 끊임없이 주요 클럽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적설이 돌았다. 나폴리의 우승이 확정되자 다시 김민재를 향한 관심이 화두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수준으로 알려진 6000만 유로를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바이아웃 조항은 여름 이적시장이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보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자존심 지켰다…女골프, 국가대항전 한일전 완승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우승상금 50만 달러)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 여자 대표팀이 예선 마지막 경기는 일본전에서 승리하며 위안을 삼았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파크(파72)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일본전에서 2경기 모두 이겼다.

한국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선 호주전과 태국전에서 져 B조 3위가 확정돼 4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2승4패 승점 2점을 올려 2위 호주(3.5점)에 밀렸다.

이로써 조 1위 태국과 2위 호주가 4강에 올라 A조 1위 스웨덴과 2위 미국을 상대한다. 태국이 미국과, 호주가 스웨덴과 맞붙는다.

최혜진-전인지 조는 일본 하타오카 나사-아야카 후루에 조에 3홀 차 승리를 거뒀다. 고진영-김효주 조도 사소 유카-시부노 히나코 조를 3홀 차로 꺾었다.

직전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4강 진출에 실패하며 짐을 싸게 됐다. 한국은 2014년 첫 대회에 공동 3위를 한 데 이어 2016년에 준우승, 2018년 우승으로 선전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노렸지만 태국과 호주에 져 쓴잔을 기울였다.

광주시청 박승우,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사격 국가대표

'제5회 직지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금 4개·은 2개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의 박승우가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가 오는 10월 22일~28일 열리는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7일 밝혔다.

박승우는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5회 직지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수상했다.

박승우는 이번대회 단체전 공기총 복사(R5)와 혼성 화약총 복사(R9) 등에서 3관왕, 개인전(R5) 1위로 4관왕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도 공기총 입사(R4) 등에서 은메달 2개 추가했다.

또 지난 3월에 열린 2023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3관왕에 이어 4월에 열린 제16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3관왕(개인전 금 2개·단체전 1위)을 차지했다.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한 박승우는 지난해 10월 '2022 알아인 장애인사격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 경험을 토대로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겨냥한다.

박승우는 "지난 2020년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아시안게임은 첫 참가이다"며 "9월 열리는 페루리마 세계장애인 사격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 10월에 열리는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총성이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한일전 승리 女골프 대표팀 "웃으며 마무리 해서 다행"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우승상금 50만 달러)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 여자 대표팀이 예선 마지막 경기인 일본전에서 승리한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파크(파72)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일본전에서 2경기 모두 이겼다.

경기 후 전인지는 기자회견에서 "내일 경기를 못하니까 한 홀이라도 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팬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팀 경기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정말 드문 기회인데 웃으면서 마무리 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인지는 또 "네 선수 모두 남은 2023시즌에 우승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같은 한국 선수, 그리고 이번 주 맏언니로서 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못 준 것 같아 미안하다. 항상 뒤에서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각자 모두 좋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우리 이렇게 다음에 나오더라도 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며 "오늘 경기는 모든 한국 분들이 승리를 원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이틀보다 더 부담감이 많았고 더 짜릿했던 경기였다"고 돌아봤다.

김효주는 "나 때문에 진영이가 고생이 많았다. 진영이가 정말 잘 치더라. 많이 배운 것 같다"며 "내가 큰 도움이 못 됐는데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팀워크를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진은 "인지 언니와 3일 동안 경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 전까지는 각자 경기하다보니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면서 경기할 일이 없었다"며 "팀으로 경기하면서 언니에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언니가 많이 이끌어줘서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대 양궁부 전국남여종별선수권 대활약

대회신기록 세운 서보은 금메달 2개·최민영 은메달 1개 획득

국립순천대(총장 이병운)는 제57회 전국남여종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양궁부 선수들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5월 2일까지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순천대 서보은(1년)이 여자 리커브 대학부(1~4학년) 30m에서 358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서보은은 이후 열린 50m에서 344점을 기록하며 한국체대 이윤지(4년, 342점)와 광주여대 오예진(2년, 337점)을 꺾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날 서보은은 60m에서 339점, 70m에서 322점 등으로 개인종합 1363점을 기록하며 동서대 박세은(4년)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순천대 최민영(2년) 역시 30m에서 356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해 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대회 신기록을 기록하며 2관왕에 오른 서보은은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과 학교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얻은 결과라 뜻깊다. 부족한 부분을 잘 준비해 남은 대회에서도 활약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영 역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훈련했던 대로 결과가 나와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순천대 김문선 양궁부 코치는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며 침착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기쁘다.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올해 남은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보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개인전, 50, 60, 70m에서 우승하며 대회 4관왕에 오른 양궁 유망주로 올해 순천대에 진학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男배구 우승경험 요스바니, 외국인 후보 중 최고 인기

프로배구 남자부 우승을 경험한 요스바니 에르난데스(32·쿠바)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며 한국 무대 복귀를 앞뒀다.

요스바니는 지난 6일(한국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하산 도안 스포르 콤플렉시에서 가진 외국인 트라이아웃 연습 경기에서 안정적인 스파이크와 서브, 리시브 능력을 보였다.

40명 참가자 중 29명이 경기에 나섰고 감독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스바니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요스바니는 감독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며 "한국에서 뛸 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어필이 됐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고 말했다.

다른 경쟁자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자신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는 질문에 요스바니는 "이전 소속팀에서 경기를 한 뒤 열흘 만에 처음으로 공을 만졌다"면서 "내가 무조건 된다는 생각보다는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내일 더 잘하고 모레 더 잘해서 뽑히고 싶다"고 밝혔다.

요스바니는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에서 뛰었다. 그는 2020~2021시즌 대한항공을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요스바니는 "3년 전에 챔피언이 된 것이 좋았다. 이번에 또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결정적 일대일 찬스 놓친' 손흥민, 팰리스전 평점 6~7점대

토트넘, 팰리스에 1-0 승리…결승골 케인은 7.8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토트넘)이 현지 매체로부터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44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이날 경기는 해리 케인의 결승골을 앞세운 토트넘이 1-0으로 승리했다.

최근 수비 불안으로 우려를 낳은 토트넘은 팰리스를 상대로 변칙적인 4-4-2 포메이션을 들고나왔다.

손흥민이 전방 스리톱이 아닌 측면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 포진했다.

또 반대편에는 페드로 포로와 에메르송 로얄을 동시에 기용한 '더블 풀백' 전술을 가동해 팰리스 에이스인 윌프리드 자하를 견제했다.

손흥민도 수비 시에는 측면 깊숙이 내려와 상대의 뒤 공간 침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손흥민까지 수비에 적극 가담하면서 토트넘은 지난 2월26일 첼시전(2-0 승) 이후 약 70일 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다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건 두고두고 아쉬웠다.

손흥민은 후반 31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하프 라인 아래서 찔러준 롱패스를 따라 뒷공간을 침투한 뒤 수비수를 따돌리고 샘 존스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았지만, 오른발 슈팅이 막혔다.

골키퍼를 제치려는 동작은 좋았으나, 존스턴이 이걸 파악하고 각도를 좁히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5점을 줬다. 선발로 나선 11명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결승골 주인공 케인은 7.8점을, 히샤를리송은 6.6점을 받았다. 무실점에 기여한 수비수 로메로는 가장 높은 8.9점을 기록했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주면서 "전반에는 분투했고, 후반 시작 10분 후 헤딩으로 중요한 가로채기를 기록해 마이클 올리세의 득점 기회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대 골키퍼를 제치려 했지만, 결국 선방에 막혔다"고 덧붙였다.